

한국대표팀 금 2개, 은 1개, 동 4개 수확... 리커브 전종목 메달

광주세계양궁

‘세계 최강’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16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총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컴파운드 동메달 1개까지 더하면 총 7개의 메달을 땀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지난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6년 만이었다. 첫 세계선수권은 1985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70여 국에서 온 500여 명의 선수가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총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양궁 강호인 한국은 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뿐만 아니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까지 펼쳐지는 만큼, 최대한 많은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컴파운드, 리커브 모두 메달을 따냈다. 컴파운드에선 최용희(현대제철)가 유일한 메달을 안겼다.

이번 대회에서 최용희를 제외한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 전원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조기 탈락했다.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의 김중호(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와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의 한승연(한국체대), 심수인(창원시청), 소채원(현대모비스) 등이 분투했지만

컴파운드에선 최용희가 유일한 수상... 동메달 리커브에서는 전 종목 석권에는 실패했지만 남녀 개인·단체·혼성 전부 입상하는 저력 보여

만, 메달을 쓰진 못했다.

유일하게 16강에 오른 최용희는 지난 8일 파운드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커티스 브로드나스(미국)를 146-145로 제압, 동메달을 거머쥐며 홈에서 열린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을 소화한 리커브는 목표했던 5관왕은 해내지 못했으나, 전 종목에서 메달은 획득했다.

한국 리커브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냈고, 2021 양크린 세계선수권에서도 전 종목을 씩씩했다.

직전 대회인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는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챙긴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대회 8연패에 도전했던 혼성전에서 은메달이 나왔다.

‘막강 듀오’ 김우진(경주시청)-안산(광주은행) 조는 예선 1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순항했지만, 결승에서 스페인에 2-6로 패배하며 2위를 기록했다.

여자 단체전에선 동메달을 획득했다. 안산,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대만에 4-5 석패를 당했다.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에 오르지 못한 건 1999년 리옹, 2023 베를린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베를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다행히 무관에 그쳤던 베를린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인도를 5-3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빛 과녁을 쏘았다.

김우진,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미국을 꺾고 대회 3연패이자,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금메달을 이뤄냈다.

‘막내’ 김제덕은 형들이 개인전에서 조기 탈락한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2개 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김제덕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동메달 없이 남자·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왔다.

메이저 대회 개인전 메달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징크스를 털어냈다.

여자 태극궁수들이 대회 마지막 날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 올림픽



1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혼성 금메달 결정전, 메달을 수여받은 국가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메달을 수여받은 미국 국가대표 트렌튼 코웰스(Trenton Cowles)·브래디 엘리슨(Brady Ellison)·크리스티안 스토다드(Christian Stoddard), 가운데 금메달을 수여받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제덕·김우진·이우석, 오른쪽 동메달을 수여받은 일본 국가대표 아오시마 테츠야(Aoshima Tetsuya)·카와타 유키(Kawata Yuki)·나카니시 준야(Nakanishi Junya). /뉴스스

에서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임시현이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있었지만, 강채영과 안산이 나란히 포디움에 섰다.

강채영은 주징이(중국)와의 대회 마지막 날 일정한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전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최근 대표팀으로 돌아온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첫 우승을 달성했다.

강채영에 패배해 3위 결정전으로 갔던 안산은 다이난다 초이루니사를 꺾고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안산은 이번 대회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강자의 위용을 뽐냈다. /김명수 기자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현재 광주은행 소속으로 활동 중인 ‘광주의 딸’ 안산은 고향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로써 한국은 컴파운드 1개, 리커브 6개 총 7개의 메달로 멕시코(금2·동1)를 제치고 종합 순위 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명수 기자

전남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학교체육 유망주 발굴의 장”

전남교육청, ‘제3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성황리 마무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최한 ‘제35회 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목포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학생 선수 1,257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도자·학부모 400여 명, 심판 및 임원 120여 명 등 총

1,700여 명이 대회를 지원하고 함께했다.

대회는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 A, B, C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A그룹에서는 목포시가 우승, 순천시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B그룹에서는 해남군이 우승, 영암군이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C그룹에서는 보성군이 우승, 신안군이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육상이 다른 스포츠 종목의 기초가 되는 만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게는 유망주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됐다.

특히 참가자 중 상당수가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일반학생으로, 이들이 지역 대표로서 트랙과 필드를 누비며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은 기록 이상의 의미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한 한 체육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대회가 열려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동시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일반학생들의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초 종목인 육상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남 체육교육의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경기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35회 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의 우승 지역 대표 학생들과 지도자, 관계자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촬영하고 있다.

평가된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체육교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 발전에 힘을 보낼 방침이다. /전해정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른 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영 3년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전남, 올 가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무대 된다

9~10월 프로배구·철인3종·바둑·LPGA... 국제대회 잇따라 열려

10만 방문객 예상... 스포츠 관광 융합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라남도가 국제·프로스포츠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중심지 전남’으로 도약하고 있다.

프로배구, 철인3종, 바둑, 국내 유일 정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차례로 열리면서, 전남 전역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13일부터 28일까지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NH농협 프로배구대회가 열린다. 남녀부 14개 V리그 팀과 초청 2개 팀이 참가해 16일간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평균 관중 3천 명을 기준으로 약 82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글로벌 철인들의 도전도 빼놓을 수 없다. 26일부터 29일까지 구례에서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가 열린다.

국내외 900여 명의 선수가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등 총 226km 코스를 완주하며 강인한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

상위 원주자에게는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주어진다. 구례는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 철인 3종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다.

스포츠의 지적 매력을 더하는 대회도 이어진다.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안과 영암에서는 국수산맥 국제바둑 대회가 개최된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세계 최정상급 기사 16명이 토너먼트로 기량을 겨루고, 아마대회를 포함해 총 1천100여 명이 참가한다.

해의 선수단 100여 명은 남도의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일정에도 함께해 바둑과 남도 관광의 매력을 동시에 전한다. 대회는 생중계돼 국내외 바둑 팬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는 세계랭킹 상위 70명과 초청선수 8명이 참가하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총상금 230만 달러(약 32억 원), 우승상금 34만 5천 달러(약 4억 8천만 원)

가 열린 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정규 대회다.

5~6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돼 목포, 해남을 중심으로 서남권 지역 관광·숙박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스포츠대회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숙박·교통·음식·관광 등 전반적인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국제대회 운영 경험은 향후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가을 전남은 세계적인 스포츠의 열정과 남도 관광의 매력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라며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이 스포츠·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